

임플란트 식립 후 유리치은 이식을 이용한 각화치은의 증대

김성현*, 방은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치과 치주과

연구배경

임플란트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각화치은의 존재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각화치은이 없거나 양이 현저히 적더라도 임플란트 주위 점막의 건강에 필수적이지는 않다는 연구들도 있지만 임플란트 주위에 각화치은이 존재 함으로서 기계적 외상에 저항할 수 있고 치태조절을 원활히 할 수 있으며 유리치은의 과도한 움직임 방지, 인상채득의 유리함 등의 장점을 가진다. 특히 임플란트 주위 연조직의 혈액공급이 자연치에 비하여 적으므로 임플란트 주변의 연조직에 대한 외적 자극이 가해질 경우 생체의 방어기전이 자연치보다 약하리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잔존하고 있는 각화치은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수술 방법이 필요하고 각화치은이 부족할 경우, 임플란트 식립시 혹은 이차수술 후에 각화치은 증대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된다.

본 증례에서는 구개에서 채득한 유리치은 이식을 이용하여 임플란트 주위에 각화치은 증대를 시행하였다.

연구방법 및 재료

임플란트 식립 후 치유지대주 연결 혹은 보철물 연결 상태에서 각화치은이 거의 없는 부분에 구개 저작점막을 이용하여 유리치은 이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모든 증례에서 이식된 조직의 괴사 없이 성공적인 생착이 이루어졌고 비가동성 각화조직이 형성되었다.

결론

구개 저작 점막을 이용한 유리치은 이식술은 임플란트 주변 조직에 있어서 비가동성 각화조직의 증대에 유용한 치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